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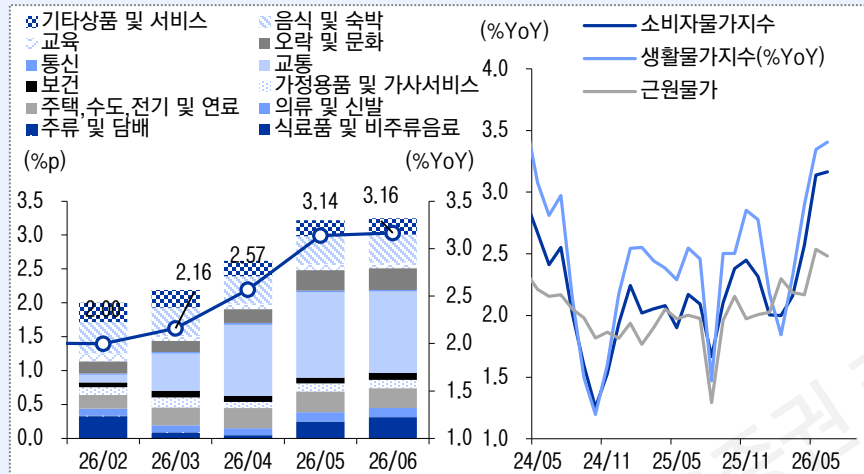
# Today Chart Bond

2026. 7. 2

채권 우혜영

whydele@ls-sec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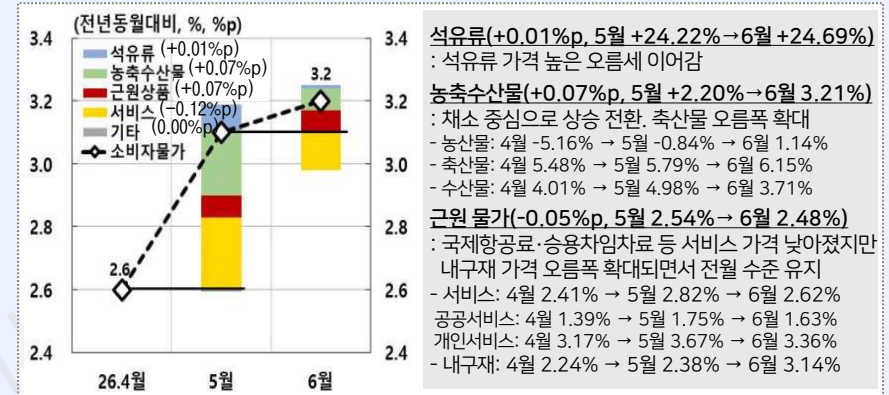
## 한국 2026년 6월 CPI: 헤드라인은 3% 초반, 생활 물가는 3% 중반



항목	상승률(%MoM)	기여도(%p)	상승률(%YoY)	기여도(%p)
총지수	+0.06%	+0.06%p	+3.16%	+3.16%p
식료품 및 비주류음료	+0.38%	+0.05%p	+2.03%	+0.30%p
주류 및 담배	+0.28%	+0.00%p	+0.458%	+0.01%p
의류 및 신발	+0.06%	+0.00%p	+2.63%	+0.14%p
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	+0.02%	+0.00%p	+1.71%	+0.30%p
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	+1.16%	+0.05%p	+2.68%	+0.13%p
보건	+0.19%	+0.02%p	+1.31%	+0.11%p
교통	-0.56%	-0.06%p	+11.1%	+1.11%p
통신	-0.08%	-0.00%p	+0.533%	+0.02%p
오락 및 문화	-0.22%	-0.01%p	+5.434%	+0.34%p
교육	-0.01%	-0.00%p	+1.19%	+0.09%p
음식 및 숙박	+0.04%	+0.01%p	+2.661%	+0.40%p
기타상품 및 서비스	+0.06%	+0.00%p	+4.21%	+0.24%p

자료: CEIC, 한국은행, LS증권 리서치센터

## 물가 변동 요인



## Key Point

- 소비자물가는 헤드라인 3.16%(전월 3.14%),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2.44%(전월 2.53%),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.48%(전월 2.54%)**
  - 농축수산물: 수산물은 수입량 증가에 상승 폭 축소, 생육 지연·재배 면적 감소 등에 출하량 감소한 파 등 농산물 상승 전환
  - 석유류: 휘발유 등은 큰 변동 부재, 자동차 LPG 가격 소폭 상승
  - 공산품: 최근 재료비 상승,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내구재 출고가 인상
  - 개인서비스: 성수기 일수 감소, 유류할증료 인하 등에 여행·숙박 관련 가격 하락
- 한국은행 이지호 조사국장, 생활물가 상승률도 3% 중반의 높은 오름세 지속해 취약 계층 생계비 부담 큰 상황이라 평가(지난달과 동일한 평가)**
  - 7월: 국제 유가 하락, 정부 물가안정 대책 영향 등에 6월보다 하락 전망
  - 향후: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해 당분간 높은 수준 지속 전망. 근원은 비용 충격 전이, 수요 압력 확대 등으로 높은 상승률 지속할 것을 예상

### 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(작성자: 우혜영)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의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\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  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  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